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취임 축하한 판매 수익금·쌀 기부** 저축은행중앙회는 제18대 박재식 신임회장이 취임하며 받은 축하 난에 대한 판매 수익금과 축하쌀을 마포구 공덕동주민센터에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과 쌀은 지난 21일 취임한 박 회장의 취임 축하난을 임직원에게 판매해 조성한 기부금 100만원과 쌀 450kg이다. 박재식 회장(사진 맨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김동수 공덕동장(사진 맨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그리고 저축은행중앙회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NH농협은행, 설 앞두고 사회공헌활동 릴레이** NH농협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행장을 중심으로 릴레이 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 31일 밝혔다. 김인태 마케팅부 부행장(오른쪽 두번째)과 직원들로 구성된 1004봉사단은 지난 30일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을 찾아 자발적 성금으로 마련한 연탄 2000장을 독거 어르신들 댁에 직접 배달하며 따뜻한 온기를 나눴다. /농협은행



**KT&G, 상상스타트업 캠프 3기 성과 발표회** KT&G가 청년창업 지원 사업인 '상상 스타트업 캠프' 3기 참가자들의 성과를 발표하는 '더 데뷔(THE DEBUT)'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30일 창업지원기관, 투자기관 관계자 및 사회혁신 창업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참여자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강남구 역삼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잼투고'에서 열렸다. /KT&G



**SPC그룹, 설 명절 지역사회 나눔활동 실시** SPC그룹은 지난 30일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사업장에서 인근 복지기관에 자사제품을 전달하고 임직원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명절 맞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 명절행사는 전국 9개 사업장 인근 13개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임직원 150여명이 참여해 무료 떡국 나눔을 하고 자사 제품 후원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SPC그룹

인사

- ◆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김성호 △공공노동정책관이 현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시민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장근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경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파견 양성필 ◇과장급 전보 △부처지청장 유재식 △산단지청장 박미심 △충주지청장 이한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두희
- ◆ **우정사업본부** ◇과장급 임용 ▲대전전산우체국장 안승도
- ◆ **한국관광공사** ◇승진 (1급) △기획조정실장 전영민 △경영지원실장 이수택 △국제관광실장 김만진 △관광인프라실장 이학주 (2급) △예산팀장 박윤숙 △아시아중동팀장 김형준 △레저관광팀장 권영미 △숙박개선팀장 이상민 △투바이지시장 강규상 △토론토지사장 박형관 ◇승진-전보 (2급) △국제관광전략팀장 김광희 ◇전보-보직변경 △홍보실장 박재식 △마케팅지원실장 차창호 △국내관광실장 김홍기 △사회적가치실장 김두조

- △관광상품실장 한화준 △홍보물제작반역팀장 이태혁 △테마상품팀장 이병찬 △의료웰니스팀장 김정아 △미팅엔터테인먼트팀장 김남천 △국내관광전략팀장 정창욱 △관광빅데이터센터장 김영미 △관광인력교육팀장 박석주 △일자리기획팀장 김태윤 △비서팀장 이상우 △노무팀장 이장의 △재경팀장 오병민 △중국팀장 진종화 △구미주팀장 주성희 △컨벤션팀장 오홍섭 △관광복지팀장 김석ICT사업팀장 김권기 △중문골프장팀장 엄철용
- ◆ **특허청** ◇과장급 전보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 황은택 △자원재생심사팀장 임호준 △특허심판원 심판관 홍순표 △특허심판원 심판관 신용주
- ◆ **한국은행** ◇부서장 이동 △인사운영관 김인구 (前조사국 부국장, 1급)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채병득 (前인사운영관, 1급승진) △경제교육실장 김진용 (前경제교육실 교수, 1급) △홍콩주재 박광석 (前외자운용원 투자운용부장, 1급승진) △전북본부장 최요철 (前홍콩주재, 1급) △경남본부장 노종식 (前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 1급승진) ◇1급승진 △정책보좌관 홍경식 △법규제도실장 배준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채병득 (前인사운영관) △재산관리실장 김윤기 △홍콩주재 박광석 (前외

- 자운용원 투자운용부장) △목포본부장 최낙균 △경남본부장 노종식 (前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 △국방대학교파견 서원석 (前인재개발원 부원장) △인사경영국소속 이상엽 (前금융결제국 전자금융부장) ◇2급 승진 △기획협력국 나승호 허돈구 △커뮤니케이션국 김정현 김제현 △전산정보국 주연순 △인사경영국 김영환 (前노사협력팀) △조사국 최인방 △금융안정국 이순호 이승용 △통화정책국 박종우 △금융결제국 이병욱 △발권국 김태형 △울산본부 김경용 △인사경영국소속 강성원 강한구 왕정균 이민규 황광명 ◇3급 승진 △기획협력국 신지선 △커뮤니케이션국 임태욱 △전산정보국 양희정 이진원 △인사경영국 고경철 구자천 김기봉 노진영 박연숙 △인재개발원 김동휘 △조사국 김대용 김병국 △경제통계국 이윤복 한경철 △금융안정국 박기덕 △통화정책국 성병목 △금융시장국 김경성 △금융결제국 배성익 신성환 △프랑크푸르트사무소 권태을 △외자운용원 조병준 △경제연구원 가국 △감사실 오석은 △부산본부 김상훈 (前국제기구팀) △대구경북본부 조영규 △강원본부 민병기 △인천본부 김병수 △포항본부 이우철 △인사경영국소속 이동원 (前국제

- 무역팀) 조재현 ◇4급 승진 △기획협력국 정문기 △차세대시스템개발단 최재순 △인사경영국 남이경 △조사국 이정기 △경제통계국 김아현 방순욱 안성희 △금융안정국 김현수 설범영 △금융시장국 이은지 △국제국 황다슬 △국제협력국 이수향 △대구경북본부 윤재준 정혜리 △광주전남본부 최민우 △전북본부 방수연 △충북본부 정승환 조형진 △강원본부 김성기 유선희 유지인 △인천본부 이수지 △제주본부 황수빈 △경기본부 이재영 조영화 △경남본부 권수진 △강릉본부 김덕형 박정현 △울산본부 박석서 △인사경영국소속 김현만
- ◆ **한국자산관리공사** ◇승진 1급 △캠코연구소장 김원대 △정보시스템부장 오민우 △기업지원총괄부장 김장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임년욱 ◇승진 2급 △중합기획부 한덕규 △기계지원총괄부 김홍조 △기업지원총괄부 김동현 △기업지원2부 김학중 △해양금융부 김준태 △해양금융부 조기환 △국유재산총괄부 임태주 △공공개발총괄부 신진철 △광주전남지역본부 제주지부장 하해웅 △경남지역본부 통영지부장 이정환
- ◆ **한국철도시설공단** ◇1급 승진 △비서실장 이현

- 철 △기획본부 기획조정실 사업전략처장 고병찬 △ " 혁신성과처장 김동범 △기술본부 케도처장 전기신 △경영본부 계약구 매계약부장 강홍욱 △시설본부 수송계획처장 김흥기 △ " 자산운영단 자산개발처장 최근희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상열 △연구위원 황우선
- ◆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사무이사 박광규
- ◆ **경상대** △의과대학장 우항욱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주영태 △의과대학 학생부학장 황선철 △의과대학 기획·연구부학장 나병국

부음

- ▲하유진(전 성교관부관장)씨 별세, 하성욱씨 부친상=29일 경상대병원, 발인 2월2일 오전10시, 055-750-8652
- ▲김호숙씨 별세, 채현석씨(CJB 보도국 차장) 모친상=30일 오후 7시40분, 청주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무궁화2호실, 발인 2월 2일 오전 9시, 043-298-9200.

#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



여지운 변호사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Q. 조합원들로부터 신임을 잃은 조합장 A는 법원에 의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고 말았다. 그 대신 B가 법원에 의해 직무대행자로 선임 가처분 됐다. 그런데 B는 기존에 이미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업무를 했다. 그 사이에 C가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됐고, C는 제3의 업체와 조합을 대표해 계약을 체결했다. B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것과 C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각각 유효할까?

A. 조합원들로부터 신임을 잃은 등으로 조합장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는 경우는 적지 않다. 이 경우 대부분 법원에 의하여 직무대행자가 선임된다. 그런데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B의 업무 범위는 조합의 통상 업무에 속하는 범위 내로 한정된다. 직무대행자는 임시로 조합장을 대신하는 것이니,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에서만 운영하라는 것이다. 직무대행자는 조합장으로 정식 선임된 자가 아니니, 조합장과 같은 정도의 권한을 줄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예외가 있다.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통상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당해 업무가 조합에 꼭 필요한 업무인지, 조

합의 경영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대법원 2008마277 결정).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B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업무는 통상 업무에 해당할까? 하급심 판례 중에는 기존에 인가 받았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것, 임원 선임에 관한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을 변경하는 것 등은 통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안이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347 결정).

또한 판례 중에는 재건축 조합이 이주를 거부하는 소유자와 해당 부동산을 감정가에 따라 매수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이를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통상 업무 범위라고 본 사례도 있다(대법원 99다62890 판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원만히 수습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통상의 업무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무가 통상의 사무인지,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사무인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다. 다만, 기존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안에서 B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업무를 한 것은 통상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새로운 조합장인 C가 제3의 업체와 조합을 대표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유효한지 알아보자. 문제는 C가 새로이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B에 대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B의 권한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직무대행자선

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직무대행자만이 조합을 대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B 직무대행자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기존의 조합장이던 A가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됐다면 어떨까? 마찬가지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B만이 조합을 대표할 수 있고, A는 대표권이 없다는 것이 확고한 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9다70395 판결). 이와 같은 경우에 A는 법원에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면 되고, 법원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A가 조합의 대표권을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94다56708 판결).

따라서 만약 이 사안에서 B에 대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도 않았는데, C가 제3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대표권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에 대해 제3의 업체가 몰랐다면 이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대법원 99다62890 판결, 대법원 92다5638 판결).

이처럼 기존 조합장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고 새로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는 등의 경우,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누구에게 대표권이 있는지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합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계약이 무효가 되어 후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 거래소 '컴플라이언스 대상'에 NH투자증권

한국거래소는 31일 '2018년도 컴플라이언스 대상' 시상식을 열고 NH투자증권에 내부통제 우수부문 컴플라이언스 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컴플라이언스 대상은 증권·선물회사의 자발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공정거래질서와 자본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선정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준법 감시체계 부문, 불공정거래 예방 모니터링 부문 등 평가 항목 전반에서 우수한 평점을 얻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DB금융투자가 내부통제 우수부문 컴플라이언스 최우수상을, 메리츠증권이 내부통제 개선부문 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고원종 DB금융투자 대표(앞줄 왼쪽부터), 정영태 NH투자증권 대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뒷줄 왼쪽부터),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이 31일 서울사옥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컴플라이언스 대상' 시상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